

李退溪에 대한 佐藤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의 尊信**

山崎道夫*

• 목 차 •

I. 序論	2. 村士玉水の 李退溪書抄
II. 本論	III. 佐藤直方の 李退溪 尊信에 관하여
1. 涸葉默齋에 다음 말이 있다.	IV. 結論

I. 序論

佐藤直方(1650~1717)은, 山崎闇齋門下 三傑의 한 사람이다. 三傑이란 佐藤直方(字도 號도 없음. 號를 剛齋라 했다 함은 誤傳. 直方은 이름이다. 통칭은 五郎左衛門. 直方の 書에는, 佐藤五郎左衛門, 佐藤直方, 直方, 때로는 佐直이란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제자들 역시 佐藤直方 선생, 또는 五郎左衛門 선생으로 쓰고 있다.), 淺見綱齋(1652~1717), 三宅尙齋(1662~1741)의 삼인이다. 삼인의 학풍에 관하여 楠本碩水는, 「直方高矣, 綱齋明矣, 尙齋精矣, 闇齋先生則兼是三者, 加以廣大, 此其所以爲先生也」(碩水遺書권8)라고 말하고 있다. 直方은 哲理에 높고 綱齋는 절의에 밝고, 尙齋는 학에 精細하다는 뜻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다. 말하자면 直方은 가장 철인풍의 위인, 綱齋는 절의의 위인, 尙齋는 학자

* 國土館대 명예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0호(1976) 게재논문

형의 위인이었다.

李退溪(1501~1570)의 학은, 일본에 들어와서는 주로 山崎闇齋(1618~1682), 大塚退野(1677~1750)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었으나, 闇齋學派에서는 直方이 가장 정성껏 李退溪의 학문정신을 전했고, 그의 門流의 稻葉迂齋(1684~1760), 그의 아들 默齋(1732~1799)와 그 門流에 있어서도 李退溪에 대한 존신은 보통이 아니었다. 이제 直方の 전집 韞藏錄 및 그 門流의 書에 의거하여 존신 표명의 사례를 한 두 가지 기술함으로써, 直方 및 그 학통에 있어서의 李退溪 존신의 높은 정신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稻葉默齋에 다음 말이 있다.

조선의 李退溪는 朱子の 道統이다. 朱子訓에 오직 좇아서 추호도 朱子の 규모범위를 넘지 않는다. 小成의 朱子이다. 薛文淸도 진정 朱子 이후의 일인자이다. 明의 方孝孺는 확실히 도통이라고 直方이 말했다. 靖獻遺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절의의 士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默齋草卷2「孤松全稿2권 熏篋錄」)

李退溪를 「朱子の 도통이다」고 하고, 薛文淸(1392~1464)을 「朱子 이후의 일인자이다」고 하고 있으나, 直方은 李退溪와 薛文淸을 완전히 동등하게는 보지 않고 있다. 「佐藤直方先生學話」에,

薛文淸이 그만한 학식이면서도, 元의 許魯齋(1209~1281)를 존경하고 있다. 수궁이 가지 않는 일이다. 허씨도 죽음에 즈음해서는 元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다. 李退溪의 학문은, 薛文淸보다 앞서 가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정헌유언의 八士의 한 사람인 劉因이 元朝에 출사하지 않고 처사로서 일생을 마쳤는 데 비하여, 許魯齋는 출사하여 祖世를 섬긴 것을 들어, 直方은 이와 같이 비난한 것이다. 靖獻遺言은, 중국의 열사 8인, 즉 屈原, 諸葛孔明, 陶淵明, 顏真卿, 文天祥, 謝枋得, 劉因, 方孝孺의 事蹟遺文에서 따서, 綱齋가 군신의 대의를 밝힌 것인데, 그 가운데 방효유(1357~1402)에 대해서, 直方이 「道統也」라고 평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2. 村士玉水の 『李退溪書抄』

처음에는 三宅尙齋의 문하에서 후에 가서는 稻葉迂齋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默齋등과 함께 道學에 정진한 사람으로서 村士玉水가 있다. 이 사람의 손으로 『李退溪書抄』 10권 10책(日本刻版 『李退溪全集』 하권)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默齋가 「그의 학문이 크게 진입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朱子書節要』의 강구에 있다.(吾學源流)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퇴계의 『朱子書節要』를 강구한 결과로서, 『李退溪書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의 古賀精里의 序에 「先生之輯節要也, 能得朱子之心, 幸教後學, 今此書蓋亦倣之, 玉水翁之信先生, 猶先生之信朱子」라고 쓰여 있다. 이로써 이 책이 이루어진 所以와 그가 李退溪를 존신하는 까닭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Ⅲ. 佐藤直方の 李退溪 尊信에 관하여

(1) 李退溪文集을 봤다는 일.

直方이 李退溪文集을 본 것은, 酒井侯의 저택에서였다는 기록이 있다. 원래 闇齋學派의 사람들은 祿仕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봉록 때

문에 도를 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디를 가나 녹사의 고질 뿐이외다」고 直方이 谷秦山에게 보낸 서신과 같이 녹사는 결단코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賓師의 예로써 도를 구하러 오면 그런 일에 구애하지 않았는 데에 또한 산뜻하고 소탈한 直方의 인품이 엿보이기도 한다. 直方은 福山의 水野勝種侯, 鹿橋의 酒井忠舉侯, 그리고 그 밖에도 伊勢崎의 酒井侯, 伊勢의 長嶋侯, 肥前の 土井侯, 館林의 松平侯, 遠江의 西尾侯, 出羽의 佐竹侯, 彦根의 井伊侯 등으로부터 懇望을 받아 도를 강론했다. 한번 강론에 들어가면 군신은 평등이라는 엄격한 師道로써 스스로의 위치를 지켰다. 上述한 酒井侯의 저택에서 李退溪문집을 보고 있다. 전집 韞藏錄 권9 跡部氏手編의 항에

酒井雅樂頭(鹿橋藩 酒井忠舉侯)를 말함. 鹿橋는 지금의 前橋의 저택에 唐書を 위시하여 이것 저것 여러가지 많은 서책들이 있었다. 그 책들을 舉風했다. 四書의 蒙引 같은 것도, 지금의 版木보다 상세한 것이 있다고들 한다. 李退溪문집도 있어서 대개 봤다. 죄다는 보지 못하였다.
(방점필자)

고 쓰여져 있다.

(2) 『李退溪文集』이 土佐에 들어 와 있었다는 일.

韞藏錄 권11, 菅野兼山所錄之語에,

享保 丁酉(丁酉는 그 2년 때에 直方 68세, 歿 2년 전의 일) 8월 처음으로 直方선생을 뵈옵게 되었다. 때마침 『大學或問』의 강석이 있었다. 선생이 말씀하셨다. 土佐의 사람이 말하기를 本朝의 道學은 山崎嘉右衛門(闇齋의 통칭)에서 비롯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나 이에 앞 서서 土佐의 땅에 小倉氏彌右衛門(호는 三省, 土佐 南學 理學의 종주)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먼저 받기했다. 진정 대학이라는 것이

있으면 소학이라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하여, 찾아 구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朱子의 마음과 암암리에 상통하는 것이다.

土佐에 또 野中伯耆(兼山은 그 號. 伯耆는 통칭. 후에 傳右衛門이라 칭함. 土佐藩의 執政)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土佐의 土로서 높은 봉록을 받는 자이다. 그런데 小倉과 절친한 사이였다. 학문에 뜻을 가진 사이어서, 國主에게 신청하여 200석을 받는 사람을 長崎에 상주시켜 諸書を 구하게 했다. 그때 小學大全을 얻어, 年樂寺에 명하여 처음으로 版行했다. (大全은 좋은 註解는 아니다.)

그 무렵 山崎씨는 京配 妙心寺의 주지 大通이라고 하는 승려의 제자로서 絶藏主라 이름하였는데, 土州(土佐의 吸江寺)에 수학하러 가서 小倉과 만났다. 小倉이 그의 기량을 보고, 때때로 道學에 몸을 둘 것을 권고함에 25세에 환속하니, 野中이 곧 바로 100석을 주어 後授했다. (關齋가 土佐에서 25세 때 불교가 그 도가 아님을 깨닫고 유교에 귀속한 것은, 30세에 저술한 『關異』에 상세하다.)

그리하여 山崎는 중년에 이르기까지 때때로 土佐에 왕래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土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맞다 하겠다. 그러니 本朝에 있어서의 道學의 祖로서, 山崎를 大書하고, 혹은 小倉이라고도 써야 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고 小倉三省을 山崎關齋와 함께 道學의 祖로서 높이 평가하고, 또

小倉의 발명은 도저히 嘉右衛門을 따르지 못한다. 土佐에서 諸書を 수집했기 때문에, 일본에 희귀한 조선의 李退溪문집도 있는 것이다.

고 『李退溪文集』이 土佐에 전해져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진귀하게 여겨져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3) 李退溪의 『自省錄』과 直方派.

李退溪의 『自省錄』은, 그가 문인 知友에게 보낸 서신 22통을 自選하여, 자기반성의 자료로 한 것이다. 『自省錄』의 내용은, 물론 『李退溪文

集』과 중복되나 퇴계 자신의 編錄인 만큼, 퇴계의 사상과 그의 정신을 터득하기에는 가장 간명하고 요강을 갖춘 것이라 하겠다. 闇齋는 그의 초년기, 慶安 3년(1650) 33세시 처음으로 『自省錄』을 읽고 감분흥기 하여 스스로의 학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나의 존재방식을 자득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闇齋의 학문은, 그 근저에 李退溪의 학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闇齋가 처음으로 『自省錄』을 읽게 되었던 경안 3년에 佐藤直方이 탄생하고 있다.

李退溪를 존송하는 闇齋의 정신을 가장 잘 전한 사람은 直方이며, 그것은 또 그의 門流에 계승되었다.

(4) 『自省錄』 중의 「答南時甫 彥經」一文.

이 글은 『自省錄』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南時甫라는 젊은 문하생의 心疾을 치유하기 위하여 준 글이다. 이一文은, 佐藤直方の 門流 그리고 또 大塚退野의 학통을 이은 肥後の 横井小楠을 몹시 감명시킨 것이다. 특히 直方の 문하에서는, 그 書中の 글귀를 족자로 만들어 완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韞藏錄 권9, 阿部氏(光海) 手編에 나타나 있다. 더욱이 「答南時甫」一文이 直方과 및 小楠 등에 애호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阿部吉雄박사가 일본각판 『李退溪全集』의 해제, 李退溪 연구회보 제3호, 일본 중국학회보 제 20집 「江戸期の 儒學에 인용된 李退溪 自省錄」에서 詳說하고 있음을 소개해 둔다.

(5) 「答南時甫」書中の 글귀를 족자로 만들었다는 것과 直方の 順境 逆境의 해설

跡部光海의 필록에,

牀上에 自省錄의 글귀를 榊原玄甫가 筆書한 족자를 걸어 두고, 愚生이 물어 말한다.

愚生이란 필록자 광해 자신이고, 書中の 글귀의 뜻을 直方에게 물었던 것이다. 필서자인 榊原玄甫는, 호를 篁洲라 하고, 木下順庵 문하 출신의 학자이다. 그의 훈화는 馬融 鄭玄의 舊說에 의거하고, 의리는 程朱의 性理에 입각한 사람이며, 후세 우리 나라의 절충학은 이 사람에게 胚胎한다. 跡部 또 가로되,

이 글귀는 이전에 友部丈(安崇을 가리킴)로부터 얻어 듣고,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 이와 같이 써 얻어 걸어 두고, 때때로 보고 있습니다.

고, 그러나 近年 窮理의 방편에만 마음을 써서 이 족자의 의미가 옆으로 어긋나 버렸다. 또 한편 요즘은 靜坐의 가르침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제 궁리이니 정좌이니 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이 글귀는 좋습니까, 어떠합니까 하는 물음에 直方은,

과연 좋은 글귀로구나.

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 글귀 속에 있는

「至如圖書花草之玩, 溪山魚鳥之樂, 苟可以娛意適情者, 不厭其常接, 使心氣常在順境中, 無拂亂以生嗔意, 是爲要法」이라고 있는 이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소상히 順境, 逆境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묻는 데 대하여 사람의 順境, 逆境이란 무엇인가에 대답하는 直方의 가르침이 매우 흥미진진하다.

直方이 설파하는 順境·逆境의 뜻은, 直方 특유의 講說이며, 부귀빈천에 초탈하고 본성에 쫓아 자득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논파하는 대목은 정말 절묘하다. 생각컨대 퇴계와 상통하는 바 여기에 있다고나 할까.

(直方) 답하여 가로되, 順境이란 마음을 物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술술 미련없이 평안스럽게 하는 것이니라(スラリ スラリト スルコトゾ). 圖書花草溪山魚鳥의 類, 그것마다 그대로 술술 마음 얽히는 일이 없이 무심하게 보고(ソレナリ ソレリニ スラリ スラリト見テ) 마음을 즐기게 하고 情에 알맞게 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뜻일까).

진정 퇴계의 뜻에 맞는 直方の 해설이다. 「スラリ」란 物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걸리어 얽히지 않는 것. 「ソレナリニ」란 物의 본성을 왜곡함이 없이 보는 것. 「スラリ」도 하여 私意가 없는 평안스러운 것이, 自適의 경지로서 道學의 妙境이다. 「スラリト」란 사전에 「평안스럽고 걸림이 없는 모양」이라고 적혀 있다. 공자가 曾點을 칭찬한 것도(논어 先進篇), 증점의 이와 같은 평안스럽고 걸림이 없는 심경에 만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直方이 또 이어 가로되,

花草魚鳥의 類일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머물러 있게 하여(사로잡혀서) 好事心を 일으켜, 차를 마시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역경이니라. (茶ノ湯者ノヤフニ思フト逆境ゾ—차물을 따르거나 마시는 예법의 번거롭고 까다로움을 말한 것 같다. 역자 주)

역경이란 物에 마음이 사로잡혀 본심을 상실하는 것이다. 花草魚鳥에 마음이 사로잡혀 호사심을 일으키고 游山이니 진기한 물건을 수집하니 茶會이니 하는 꼴로 되면, 그것은 이제 이미 역경이라고 하는 말은 또한 深妙하다. 남시보의 心疾도 이러한 것으로써는 치유할 수 없을 게다. 直方の 靜坐의 가르침에,

새소리 바람소리가 마음에 울릴 때까지는(スラリト……마음이 평안스럽고 걸림이 없다) 未發의 場이다. 새다 바람이라고(마음이 움직여 안정되지 않다) 하는 것은, 벌써 已發의 場이라고, 후에 아는 것이 좋다.

已發의 場이 되어, 마음이 사로잡혀 빼앗기는 것을 直方은 역경이라 했다. 韞藏錄續拾遺 제4의 「與永井玄黃手帖」에, 증점을 논하여 말한다.

미련없이 산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サラリサラリトスルユソ)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로다.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로다. 증점의 人欲盡處 天理流行은 여기에 있다.

논어 先進¹¹의 이 個所의 朱註에,

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天理流行, 隨當充當, 無少欠闕, 故其動靜之際, 從容如此.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평안스럽게(スラリスラリ) 또 마음이 미련 없이 산뜻하게(サラリサラリ) 이처럼 平談俗語로써 道學의 묘를 찢러 말하는 데에, 바로 直方의 진수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하겠다. 또 가로되,

사람이 나에게 나쁜 것을 하려고 들 때, 저것은 들리지 않는다고(알아 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얼굴을 찌푸리면, 順境이 아니고 逆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평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順境이다.

공자의 「六十而耳順」이 逆境이고, 明道の 「定性書」에서 말하는 「擴然而大公, 物來而順應」의 心境이 또 이것에 해당한다.

(6) 病患에 대처하는 일에 관하여.

韞藏錄 권9 跡部氏手編에,

朱子語類에, 門弟에게 그 경우 그 경우에 따른 처리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 朱子의 文字로서는 그 地頭(地步)에 卽해서 보라고 말했다. 재미 있는 일이다.

는 글이 있다. 일은 그 경우 그 경우의 상황에 상응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直方이 말한 「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미련 없이 평안스럽게 하는 것이니라」와 같은 뜻이다. 그리하여

(병에도) 그 경우 그 경우의 치료가 있을 터이다. 朱子 이후 李退溪만이 이 이치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다. 퇴계의 학은 能學이다. 薛文清 정도의 학식으로서는 이 이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居業錄따위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 말하고 있다. 「答南時甫」의 一文도, 朱子가 말한 「그 경우 그 경우에 따른 치료」의 의미를 터득한 것이라 하겠다.

(7) 道學傳

韞藏錄 권2의 「討論筆記」는, 道學이 전해진 것을 논술한 것으로서, 하나의 道學전이다.

或問敬義先生(敬義는 闇齋의 字)之出處於予. 予應之竊謂堯舜以來, 道學相傳而至于孔孟, 孔孟之後秦漢隋唐其學不傳. 至于宋周程張朱接其統, 而道學復明于世. 朱門黃勉齋竊蔡九峰實得其傳. 其餘蓋無聞焉. 元明之間, 以儒名者, 不可枚舉, 而至其窺聖學門牆, 則方孝孺薛文清才見此二人而. 朝鮮李退溪東夷之產, 而悅中國之道, 尊孔孟 宋程朱, 而其學識之所造, 大非元明諸儒之儔矣.

이상 漢士로부터 조선에 이르는 道學의 相傳을 기술하여, 다음에 일본에 미쳐 山崎闇齋에게 당도한다.

我邦中古信儒道，而自王公以下，學焉者亦衆，然如聖賢道學之義，則尙未嘗知有其說也。朱書之來於我邦，數百年之久，讀書不爲少，而識其發明道學之正義，而爲萬世不易之定準者，未聞其人焉。

近世山崎敬義先生，尊信朱子，得於其書，而博文之富，議論之定，實我邦儒學正派之首倡也。其所著書行于世，讀書深達其意，則識先生發揮道學進爲之方，而使學者不惑於所從矣。以下略

道統으로서, 堯舜二帝로부터 孔子, 孟子, 周子, 二程子, 張子, 黃勉齋, 蔡九峰, 方孝孺, 薛文清, 李退溪를 겪어 山崎闇齋에게 이르는 相傳을 거론하고 있다.

李退溪에 대해서는 「크게 元明 諸儒의 儔가 아니다」고 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闇齋에 관해서는 「我邦儒學의 正派의 首倡이다」고 인정하고 있다.

(8) 直方の 冬至文과 李退溪.

『冬至文』이란, 直方이 67세의 동지날에 一文을 지어 문하 중 걸출한 소위 藤門三者인 稻葉迂齋, 野田剛齋, 永井隱求의 삼자에게 주어서, 聖學에 勉勵하는 자는 道學의 擔夫이다 하여 임명하고 또 격려한 것이다. 이 冬至文은 直方 일대의 학의 綱要로서, 그 이전에 이룩한 講學鞭策錄, 道學標的을 더욱 힘차게 스스로의 短文으로 표시한 것이다. 道學에 정진하는 哲人의 책이며, 直方の 진면목이 약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 一文 속에서, 李退溪를 道學을 담당하는 제일인자로서 기술한 것은 주목할 만하고 朱子 이후의 제일인자로서 李退溪를 높이 평가했다.

道之廢而不行，猶擔物之捨置地上也。若有其人出於其時，則任之而使不永塗地。今務聖學者乃擔夫也。俗學之徒，則路中之游手耳。何足望道之任乎。朝鮮李退溪之後，欲負荷此道者，吾未聞其人焉。(冬至文, 하략)

(9) 李退溪를 程門의 上坐에 두다.

韞藏錄 권4에 中庸書說이 있고, 中庸의 理를 논술하고 있다. 그 속에, 李退溪를 마땅히 程門의 상좌에 두어야 할 인물이 아닌가고 하는 설이 있다. 먼저 中庸의 理를 논하여,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 理
無聲無臭至矣 理
理不離氣氣不離理, 天地人皆理氣妙合
이다.

공자曰…一陰一陽之謂道. 又曰易有太極. 大學論語孟子六經皆理氣에 다름 아니다. 中庸의 一書는, 理의 極致本原을 설파한 것이니, 聲學至極의 書이다. 初學不可讀의 言

宜矣(朱子語類62, 中庸一綱領에 「中庸初學者未當理會」). 이러므로 俗儒는 손을 댈 수는 없다. 吾黨에서도, 조금 볼 만한 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쉽사리 잘 수공이 가지 않을 터이다. 그 맛이 무궁하니, 모두 실학을 볼 수 있으리라. 우리도 中庸을 볼 땐, 마음 속을 씻고, 이제까지의 사람이 아닌 양으로 되어 보지 않으면 비치지 않는 법이다. 마음이 활짝 트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못 된다.(氣ノ窟ノヌケヌ人ノナルコトデナシ) 또 방심한 사람이 할 일도 아니다.(亦氣ヲ捨ル人ノコトデナシ) 朱子曰…天理人情於是爲至矣라고 말하는 것도 이 점인 것이다.

周子の 문인에는 그럴 듯한 사람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 李初平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깨쳤다고 하나, 학식으로 말하면 同座(同門)라고는 말할 수 없다(伊洛淵源錄 濂溪先生事狀에, 「在榘時郡守李公初平, 知其賢與之語而歎曰, 吾欲讀書何如. 先生曰…公老無及矣. 某也請得爲公言之. 於是初平日聽先生語, 二年果有得」). 程子 문인에는 楊龜山, 謝上蔡, 呂與叔은 확실히 동좌이다.

그 밖에 문턱까지 앉았던 사람이 있었으나 정자의 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여숙도 程門이 되어서 볼 만한 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朱子에서는 黃勉齋, 蔡九峰이 확실히 동좌이다. 그 밖에 문턱에 와 앉

왔던 사람으로는 吳伯豊 같은 이가 한 두 사람 있었다고 할까(吳心大, 字伯豊, 戊申己酉問答을 기록함. 朱子가 그의 守居治事皆方有를 칭찬하고 있다. 문집53 「答劉季昌書曰…吳伯豊死, 吾道不幸, 遽失此人. 餘子紛紛纔有毛髮利害」).

薛文淸은 眞儒로는 보이거나, 볼 만한 데가 빠져 있는 것은 어떤 셈인가. 그 밖에는 한 사람도 그 주변에 바라볼 만한 사람이 없다.

조선의 李退溪는 확실히 동좌이다. 程門의 상좌에 위치할는지도 모른다. 堯舜 이래의 동좌를 헤아려 봐도 정말 겨우 몇 사람 뿐이다.

(10) 中庸의 無聲無臭를 해설하고, 그 理를 아는 사람은 李退溪이라고 함.

韞藏錄續拾遺제3, 永井行達所錄에,

그런데 無聲無臭(중용장구 33 『上天之載無聲無臭』)의 箇所를 잘 터득한 사람은, 朱門에서도 黃勉齋, 蔡九峰의 두 사람이다. 그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조선의 李退溪는 확실히 터득해 있었다고 여겨진다. 薛文淸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떨는지 염려스럽다. 성인이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달린 사람이다.(생각컨대 理氣妙合을 말한다.) 이 경지를 잘 터득하는 사람조차 없는데, 이 경지에 이르러 태극과 하나로 된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이다.

(11) 『自省錄』을 읽은 直方의 감상. 李退溪는 진정 도를 자득한 사람.

韞藏錄續拾遺 제4, 酒井修教記錄(上總道學의 기초를 닦은 사람. 享保 12년 成東大橋를 수리하기 위하여 郡牧의 主簿인 修教는 이 지역에 왔다. 好學의 청년을 발굴하여, 稻葉迂齋의 문인인 修教는, 和田儀丹, 鈴木養察의 두 명을 迂齋의 문인에 儒學시켰다. 후에 迂齋의 아들 默齋가 上總의 땅에 들어 오게 된 연유로도 된다.)에,

聖學의 蘊蓄은 맹자의 물후 漢唐간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宋朝에 이르러 周程張朱의 四자가 그 온축을 계발했다. 이를테면, 漢唐의 儒者는 醢(초)와 醬油(간장)라는 이름은 알고 있어도, 짠 것인지 단 것인지 그 까닭도 알지 못한다. 宋朝에 이르러 四자가 맛을 혀로 잘 훑아 깨닫고, 醢는 시다고 하고 醬油는 짜다고 했으나, 죄다 훑아 깨닫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蔡九峰, 黃勉齋 등이 훑아 깨닫고 한 말이 있다. 薛文淸이 독서록을 음미하여 각성한 바 있는 듯 쓰여져 있으나, 일원(일원이라 쓴다. 더욱이이니 한결같이이니의 뜻으로서 밑에 부정어가 온다.) 음미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李退溪가 지은 自省錄을 보니, 이것은 맛보고 씹어 깨달은 것이다. 그 밖에는 좋으니 찌니 시니 하고 말을 해도, 귀로만 듣고 알았을 뿐이고 실제로 씹어서 먹어 보고 깨달은 것은 없다. 이 맛은 훑아 깨달아도 이리이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自得의 學이 아닌 증거)

이제, 학자는 四자의 말을 먼저 귀로 들어 깨닫고, 더욱 진입하면 거기에서 맛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中古의 현인이 훑아 봤느니 알았느니 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통속적인 말로써 흥미진진한 비유를 써서, 道學의 묘를 설파한 점, 과연 直方이 아니면 볼 수 없는 言說이다.

(12) 直方이 편집한 「王學辯集」에 맨 먼저 李退溪의 글을 기재하고 있는 일.

直方이 편집한 「王學辯集」은, 왕양명이 논박한 李退溪, 林鳶峰, 山崎闇齋, 佐藤直方, 三宅尙齋 등의 논설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의 直方の序는, 直方선생 일대의 문학이라고 默齋는 평하고 있다. 이 책은 맨 먼저 李退溪文集傳習錄論辯曰하고 그 문장을 게재하고 있으나, 이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만 하고 그친다.

(13) 朱子탄생시 紫氣云云에 관하여.

韞藏錄續拾遺 제1에,

朱子행장에 朱子 탄생시, 낚은 우물에서 紫雲이 오르고 있었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일을 李退溪가 쓴 것은 좋지 못하다. 기묘한 이야기이다. 성현이 태어날 때 이 기묘한 일이 있다면 어느 성현이 태어날 때도 있어야지 않겠는가. 만 성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때마침 紫雲이 올라왔을게다고 해두는 것이 좋다.

퇴계 이황 「朱子行狀輯註」를 검토해 보면,

一統志婺源有韞齋井，相傳，先生生時井口有紫氣。

고 있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로서, 그만큼 존송하는 李退溪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죄다 드러내고 덮어 주지 않는다. 여기에 또한 直方 一流의 설법을 볼 수 있다.

IV. 結 論

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 李退溪에 대한 존신이 어떠한가라는 이상으로써 다해진 것은 아니나, 그 존신이 깊었다는 것은 밝혀졌으리라고 생각된다. 「答南時甫」書中の 어구에 관한 直方の 이해, 특히 心氣상에 있어서의 順境, 逆境의 설은 내면으로부터 보다 깊숙이 李退溪의 생각에 당도했는 것으로 생각한다. 直方은 진정 李退溪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 說述한 것 가운데 존신을 이야기해 주는 설을 하나 둘 摘出하여 곁어로 삼는다.

默齋曰…小也의 朱子(默齋壘篋錄).

直方曰…李退溪의 학문은 薛文淸보다 앞서 있다(直方先生學話). 李退溪

東夷之產, 而悅中國之道, 尊孔孟 宗程朱, 而其學諸之所造, 大非元明諸儒之儔矣(註論筆記). 山崎闇齋에 관해서는, 我邦儒學正派之道儒唱也(註論筆記)라 말한다. 直方 또 가로되, 李退溪之後, 欲負荷此道者吾未聞其人焉(冬至文), 조선의 李退溪는 확실히 동좌이며 程門의 상좌에 위치할는 지도 모른다(中庸書說). 中庸의 無聲無臭의 箇所를 깨달은 사람이다. 李退溪는 확실히 깨달았다고 보인다(永井行達所錄). 李退溪가 쓴 自省錄을 보니 이것은 맛보고 씹어서 깨달은 것이다(酒井修教).

저 「冬至文」은, 直方門流에 있어서는, 道學의 宗旨로서 또 그 비결로서 매년 동지일에는 이것을 강론함으로써, 학맥을 근엄하게 하여 금일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冬至文 속에, 「李退溪之後, 欲負荷此道者, 吾未聞其人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존신의 지극한 것이라고, 필자 스스로 깊이 감명을 받고 있는 바이다. 이로써 결어로 삼는다.

(김기태 譯)